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Mediacenters

보도 자료	2017년 1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	담당: 사무국장 허경
	전화: 070-4352-6394	팩스: 070-7614-2206
	메일: krmedia@krmedia.org	담당자 연락처: 010-6822-0038

지난 2017년 1월 12일 전국 각지의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입장을 (사)전국 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취합/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언론미디어, 미디어교육 단체 및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잇따른 성명과 논평 발표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1월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 제1조 4항을 삭제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긴급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문제제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전반적인 정비의 노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미디어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와의 의견수렴/공감대 마련/대안마련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7년 1월 12일 미디어교육 교·강사 113명에 이어, 뜻을 같이 하는 2차 34명의 교강사 연명을 추가하여 2차로 아래의 공동입장을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 서약서 작성 지침' 에 대한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입장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이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재단의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로 하여금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여러 미디어교육 시민단체, 언론단체 및 관련 전문단체에서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로서 금번 재단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작성 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재단의 윤리강령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를 교육내용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다양한 관점을 지향하는 미디어교육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윤리강령은 재단과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상호협약하여 공동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상 계약관계상 '갑'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재단이 독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미디어교육을 운영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교·강사의 위상을 인정하고 전문적 역할을 존중함과 동시에 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재단의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한 갑질'과 다름 아니다. 일방적인 '윤리강령'이 아니라 '미디어교육 교·강사 운영안'을 마련하여 교·강사의 권리 및 재단과의 협력방안을 명시해도 부족할 마당에 교·강사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들만을 나열하여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이미 비윤리적인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미디어교육 교·강사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재단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윤리강령의 준수를 미디어교육 교·강사에게 문서로 서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지침이며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협력자로서가 아니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재단의 비합리적 인식의 발로이다. 이와 같은 구시대적 발상이 어떻게 재단 내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석우 이사장은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단의 윤리강령 및 준수 서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다. 재단이 당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다. 더불어 미디어교육 교·강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미디어를 읽고 쓰고 나누면서 상호존중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또 학교와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우리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은 재단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변화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더 많은 교·강사들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7년 1월 24일

미디어교육 교·강사 일동

연명자 현황 : 총 147명(2017년 1월 24일 오후 4시 현재 2차 취합분)

번	이름	주요 활동지역 또는 활동단체	기타
1	고현주	광주광역시	
2	김갑산	광주광역시	
3	김경심	광주광역시	
4	김영순	광주광역시	
5	김인정	광주광역시	
6	김종유	광주광역시	
7	김지아	광주광역시	
8	김지연	광주광역시	
9	김채희	광주광역시	
10	김현희	광주광역시	
11	김혜일	광주광역시	
12	김화순	광주광역시	
13	마선주	광주광역시	
14	모아론	광주광역시	
15	문예령	광주광역시	
16	박정대	광주광역시	
17	백종록	광주광역시	
18	사 군	광주광역시	
19	서진영	광주광역시	
20	신수진	광주광역시	
21	안소웅	광주광역시	
22	오영남	광주광역시	
23	오윤주	광주광역시	
24	오태승	광주광역시	
25	유명상	광주광역시	
26	육수진	광주광역시	
27	윤수안	광주광역시	
28	위경혜	광주광역시	
29	위서영	광주광역시	

30	이동석	광주광역시	
31	이순학	광주광역시	
32	이세진	광주광역시	
33	이은진	광주광역시	
34	이정훈	광주광역시	
35	이현아	광주광역시	
36	임숙영	광주광역시	
37	정나라	광주광역시	
38	정선영	광주광역시	
39	정우영	광주광역시	
40	조재형	광주광역시	
41	차현동	광주광역시	
42	천정욱	광주광역시	
43	최명진	광주광역시	
44	안진희	전북/전주	
45	고영준	전북/전주	
46	조은미	전북/전주	
47	박진영	전북/전주	
48	최아영	전북/전주	
49	윤엄지	전북/전주	
50	김다인	전북/전주	
51	최 란	전북/전주	
52	한승정	전북/전주	
53	이은상	전북/전주	
54	김남희	전북/전주	
55	성수희	전북/전주	
56	박진철	전북/전주	
57	장미경	전북/전주	
58	원태웅	전북/전주	
59	임례령	전북/전주	
60	윤정록	대구/경북	
61	이경민	대구/경북	
62	박지하	대구/경북	
63	성중곤	경남	
64	조정주	경남	
65	김민재	경남	
66	구민지	경남	
67	배진환	경기 성남	
68	강유가람	경기 성남	
69	권희창	경기 성남	
70	이계원	경기 성남	
71	배인숙	경기 성남	
72	이연순	경기 성남	
73	김진주	경기 성남	
74	신을련	경기 성남	
75	심희주	경기 성남	
76	이수미	경기 성남	
77	박지선	경기 성남	
78	이성준	경기 성남	
79	박선영	경기 성남	
80	정민정	경기 성남	

81	송하령	경기 성남	
82	김도현	경기 성남	
83	김소영	경기 성남	
84	경희령	경기 부천	
85	정연	경기 부천	
86	이유리	경기 부천	
87	유영주	경기 부천	
88	허브	서울 마포	
89	문향숙	경기 부천	
90	안나영	서울/인천	
91	김수목	서울/경기/성남	
92	안창규	서울/경기	
93	김장훈	인천	
94	김현옥	서울/경기/언론인권센터	
95	심설희	서울/경기/언론인권센터	
96	이은숙	서울/경기/언론인권센터	
97	정기용	서울/경기/언론인권센터	
98	홍현숙	서울/경기/언론인권센터	
99	윤여진	서울/경기/언론인권센터	
100	최성주	생명미디어센터	
101	한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2	조희정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3	손민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4	이현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5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6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7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8	김현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9	정혜경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10	백향숙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11	송미덕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12	홍만석	강원 원주	
113	감누리	강원 원주	
114	김산	강원 원주	
115	이승준	강원 원주	
116	하**	강원 원주	
117	문준현	강원 원주	
118	박주환	강원 원주	
119	전용선(가명)	서울/경기	
120	황다경	서울/경기	
121	이희량	서울/경기	
122	김진열	인천	
123	김치성	수원	
124	차해영	수원	
125	김은경	수원	
126	임설희	수원	
127	유승진	수원	
128	이창민	수원	
129	강혜란	수원	
130	이승준	수원	
131	이 경	수원	

132	윤강로	전북 익산	
133	임재은	전북 익산	
134	박선미	전북 익산	
135	이진행	전북 익산	
136	여환아	전북 익산	
137	홍다인	전북 익산	
138	김수진	전북 익산	
139	김귀정	전북 익산	
140	강은석	전북 익산	
141	김세영	전북 익산	
142	박화정	전북 익산	
143	이은지	전북 익산	
144	김윤희	전북 익산	
145	나성미	전북 익산	
146	박희순	전북 익산	
147	이우순	전북 익산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지역민·공동체의 미디어접근과 문화향유 · 창조를 지원하는 지역미디어센터들의 상호 협조를 위해 출범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전국 30개 센터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krmedia.org>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rmedia.org>

※ 취재 문의 :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 070-4352-6394

끝.